



#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주는 시사점

삶의질그룹 삶의질데이터센터장 허종호

## 요약 SUMMARY

### 01 배경

-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2021~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오름

### 02 목적

- 아직까지 대만의 행복 수준의 상승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가용한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인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국내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고자 함

### 03 분석 결과

-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추진 결과,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① 높은 경제성장률 ② 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가능할 수 있음

### 04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은 낮은 사회적 신뢰, 취약한 사회적 지지, 낮은 자율감, 높은 부패 인식, 과도한 상호 비교 및 경쟁체제,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행복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PART  
I

## 최근 대만의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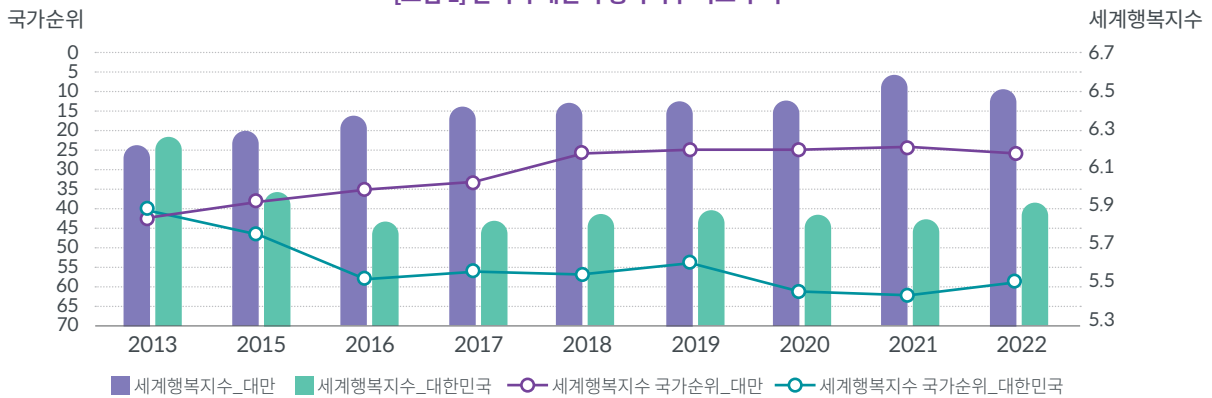
### ○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sup>1)</sup> UN세계행복보고서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함

- 2022년 대만의 행복지수(World Happiness Index)는 6.512점으로 전체 146개국 중 26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Helliwell et al., 2022)
- 전체 1위는 핀란드이고, 2위는 덴마크, 16위는 미국, 54위는 일본, 59위는 대한민국, 72위는 중국임

### ○ 대만의 행복지수 값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2021년부터 눈에 띄게 상승함([그림1])

- 한국은 2013년에 대만과 비슷한 약 6.2점대로 세계 40위권 수준이었으나 이후 행복지수 값이 급감하여 5.8점 부근(60위권)에서 정체하고 있음

[그림 1] 한국과 대만의 행복지수 비교 추이



자료: 2022 UN세계행복보고서 재구성

- 행복의 한 단면인 긍정 정서<sup>2)</sup>에서도 대만은 0.725(41위)점을, 대한민국은 0.571(117위)를 기록했고, 부정 정서<sup>3)</sup>에서도 대만이 0.100(146위)를, 대한민국이 0.235(112위)를 기록하여 대만인이 한국인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경험이 많고, 부정적 경험이 적음

### ○ 이에 대만의 행복 수준 상승의 원인을 추정해보고 국내 정책에 있어 함의를 정리하고자 함

- 아직까지 대만의 행복 수준의 상승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가용한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인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국내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고자 함

1) UN세계행복보고서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매년 국가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함

2) 긍정 정서는 설문 전말에 겪은 웃음, 즐거움, 흥미로운 것을 하거나 배운 경험에 대한 평균적인 수준을 물어봄

3) 부정 정서는 설문 전말에 겪은 걱정, 슬픔, 분노의 평균적인 수준을 물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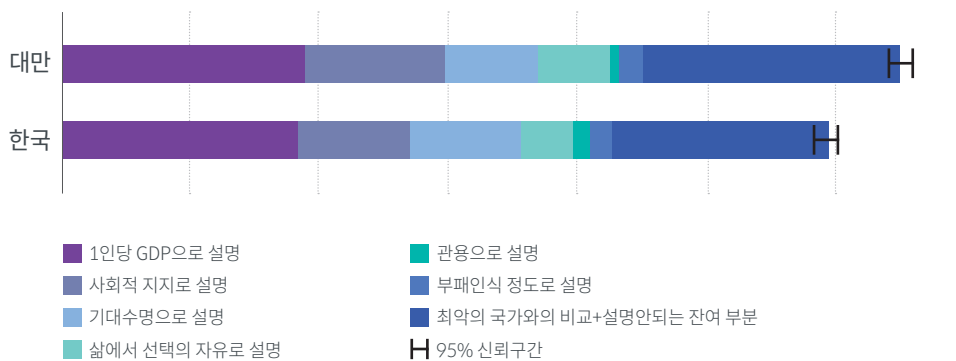
PART  
II

## 데이터로 살펴본 대만과 한국의 행복 비교

○ 2019~2021년의 한국과 대만의 행복지수를 6가지의 지표<sup>4)</sup>로 설명해보면, 사회적 지지, 관용, 삶에서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대만이 한국보다 높음([그림 2])

- 한국과 비교하여 대만이 ‘사회적 지지’, ‘관용’, ‘삶에서 선택의 자유’ 점수가 높다는 것이 행복 수준에 있어서 대만과 한국의 차이를 일정 정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 2019~2021년 한국과 대만의 행복지수 및 구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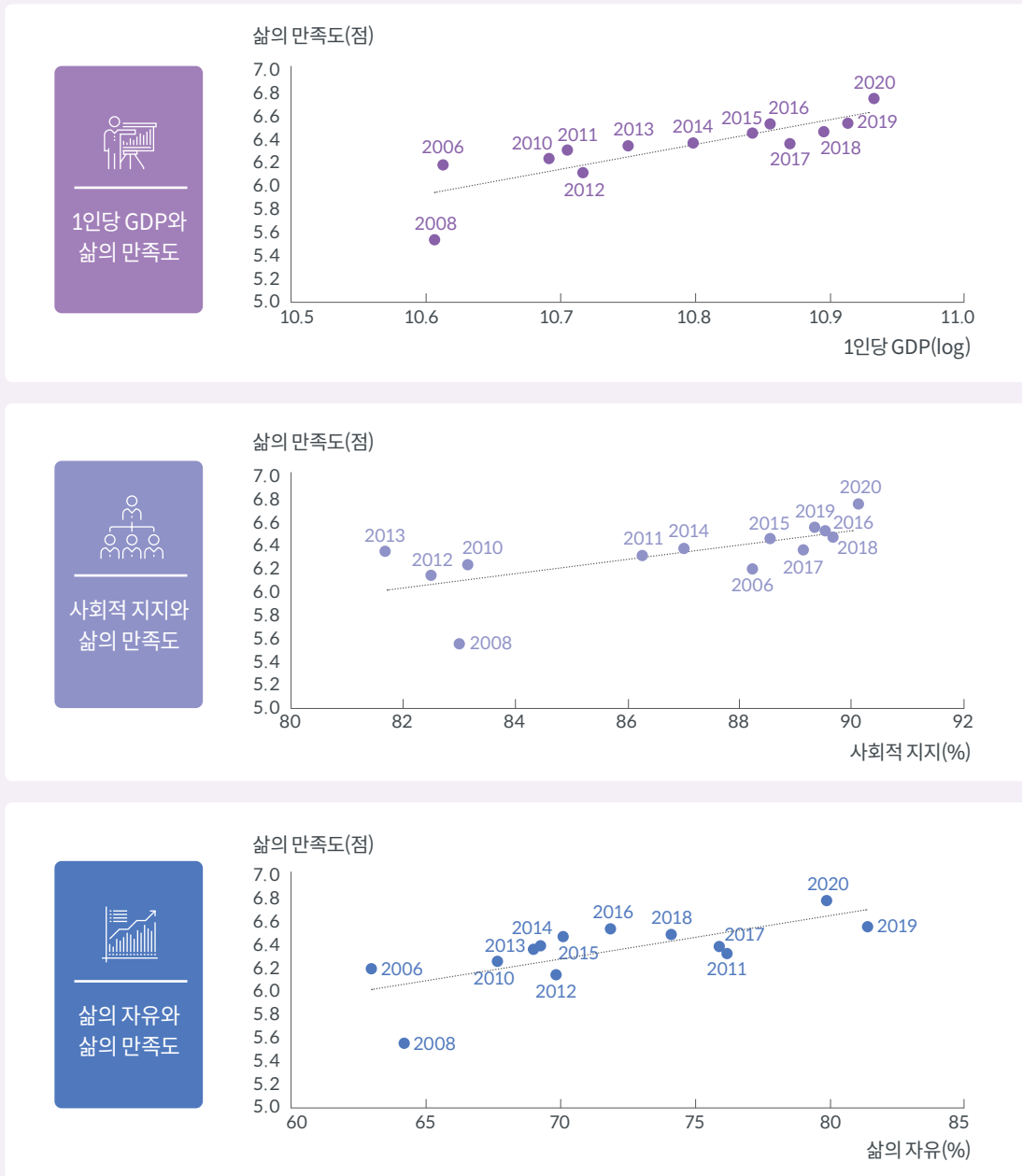
자료 : 2022 UN세계행복보고서 재구성

○ UN의 세계행복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만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산점도로 살펴 보면, 대만의 연도별 1인당 GDP 로그값과 사회적 지지 수준, 삶에서 선택의 자유도가 연도별 삶의 만족도와 선형 관계를 보임

-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보임(한준, 2021)

4) 1인당 GDP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구매력 평가(PPP) 기준, 기대수명 :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대수명 데이터, 사회적 지지 :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 :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만족합니까?”, 관용 : “지난 한 달 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 있습니까?”, 부패 인식 : “이 나라의 정부(또는 기업) 전체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그림 3] 대만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만은 어떤 정책을 추진했기에 경제가 발전하고, 서로 돕는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고, 삶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커졌다고 평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PART

III

## 대만은 왜 2년 연속 아시아 1위일까?

### ○ 2010년대 초기 대만은 청년세대로부터 귀신들린 저주받은 섬이라는 ‘귀도’(鬼島)로 불림(김서영, 2016)

- 대만 청년들은 당시 겪었던 저임금(대학 졸업 후 평균 2만2천 대만 달러, 한화 80만 8천원)으로 인해 스스로를 ‘22K세대’라고 부르면서, 수직적이고 비합리적인 근로·고용 문화를 겪을 때도 “귀도”라는 말을 써옴
- 또한, 대만 청년들은 집값이 비싸 독립을 꿈꿀 수 없고, 사회에서 공정이나 법치가 희박하고, 오랜 기간 집권한 국민당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정치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었음
- 이에 2016년 총선에서 청년세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차이잉원이 이끈 민주진보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남
- 차이잉원 정부는 2016년 5월 천수이벤의 당선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민주진보당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2020년 1월 57.2%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정권을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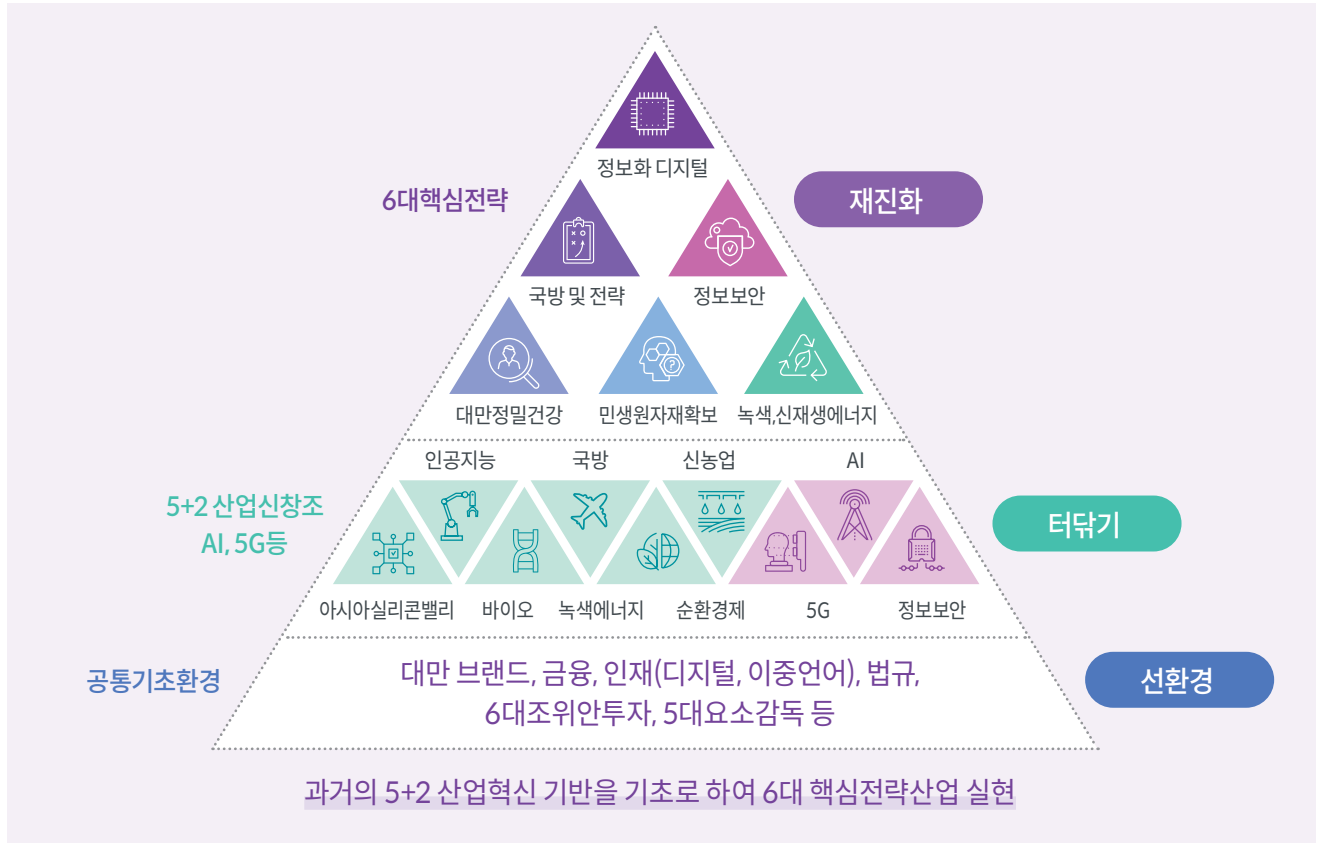
### ○ 차이잉원 1기 정부 주요 정책(2016~2019년)

- ① 친서민 정책: 최저임금법과 파견법 제정 추진,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제 전면 도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 직무 훈련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 또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0.0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자 8년 내(2016년 기준)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함
- ② 구조개혁: ‘스마트 타이완(Smart Taiwan)’을 모토로 대만의 주력산업(ICT 산업)에 기반하여 하이테크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발전을 도모함. 또한,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기계, 방위 등 5대 신산업 R&D 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함
- ③ 신남향(新南向) 정책: 아세안과 인도 반도 국가(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함. 무역,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와 문화, 교육, 연구 등 다방면에서 협력함

### ○ 차이잉원 2기 정부 주요 정책(2020~2024년)

- 차이잉원 총통은 ‘안정 속 성장 추구, 변화 속 기회 선점’을 위한 ‘6대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함(대만 국가발전위원회, 2021)
- 차이잉원 총통이 6대 핵심전략산업으로 꼽은 분야는 ① IoT·AI ② 정보 보안 ③ 바이오·의료 기술 ④ 방위·항공우주 ⑤ 신재생에너지 ⑥ 민생 필수품(의료물자, 생활용품, 식량 등)임

[그림 4]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6대 핵심 전략



- 6대 핵심 전략산업은 1기 때 추진했던 5+2산업(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기계, 방위 + 신농업, 순환 경제)을 기반으로 함. 연속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되도록 내각도 소폭으로 개편함
- 대만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이중언어정책을 도입하여 대만 인재의 국제적 접촉 및 대만 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로 추정할 수 있음

- ①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 높은 경제성장률, ② 사회적 지지의 상승 :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 자기 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의 증가 :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꼽을 수 있음

1. 높은 경제성장률

○ 지난 2년 동안 대만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장, 최고의 수출액과 해외 수출 수주의 성과를 올려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20년과 2021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0.9%와 4.0%에 그친 반면, 대만은 각각 2020년에는 3.1%,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34%, 연간으로는 6.28%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11년 만의 최고치를 갱신함(유기자, 2021)
- 2022년 1분기에는 3.06%로 둔화되었으나 한국에 비해 4년 연속 경제성장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곧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몇 년 안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김익환, 2022; 이데일리, 2022)

○차이잉원 총통은 기술을 중시하고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을 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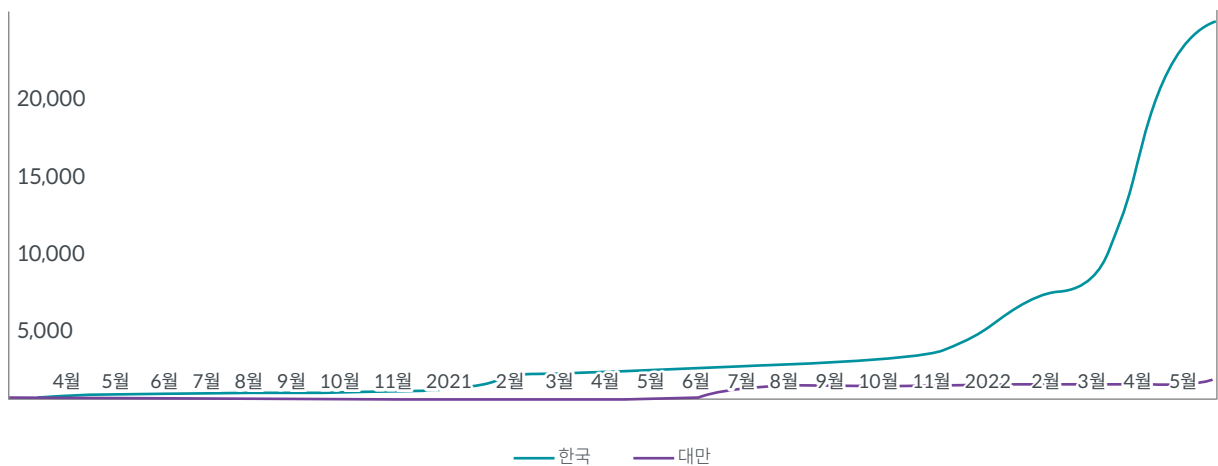
-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나갔던 대만 기업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함
- 차이 총통이 펴온 정책의 효과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대만 경제에는 위기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2.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대만은 코로나19 감염률 및 인구대비 사망률에 있어서도 중국, 홍콩, 한국, 일본에 비해 가장 낮아 성공적인 방역국가로 자리매김함

- 이는 대만의 2003년 사스 경험에 기반한 신속한 방역 대응, 견고한 바이러스 조사, 엄격한 여행객 입국 검역,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자원 배분, 정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전달, 높은 개인 보건 의식 등 요인과 관련이 있음
-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정부 정책이 전염병 통제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Helliwell et al., 2022)

[그림 5] 대만 대 한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수 비교



○아울러 대만은 “열린정부”의 이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활용됨

- 열린정부는 국민이 어떤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 책임 있는 정부기관을 찾고, 국민이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과 참여를 강조함
- 정부자료 개방과 공공정책 참여의 장(場) 제공을 통한 “열린정부”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 개개인은 정부의 지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스크를 착용, 외출 자제 등에 적극 동참함
- 대만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데 원형이 됨
- 마스크 대란 속에서 대만의 사회연결망에서는 ‘난 OK, 너 먼저’라는 마스크 운동이 일어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함

[그림 6] 대만 네티즌들의 “난 OK 너 먼저” 마스크 운동



출처: 대만 마스크 운동 페이지

### 3.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

#### ○ 대만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임

- ‘사회안전망의 강화’, ‘사회 정의의 공평 실현’ 등을 정부의 기조로 삼고 청년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저임금 인상, 육아 수당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세대간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 ○ 젠더와 소수자 등 정체성 정치 측면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가져옴

- 중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것에 강조를 두어옴
-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인권, 종교적 자유, 언론 자유 등에 관해 분석한 2018년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세계자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10개국 중 대만은 8위에 오름(Freedom House, 2017)
-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총통은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면서 “오늘 대만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날”이라고 평가함



PART  
IV

## 결론 및 제언

-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행복 순위 1위를 차지함
-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추진 결과,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① 높은 경제성장률 ② 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가늠할 수 있음
- 대만이 한때 “귀도”라고 불렸으나 지속적으로 행복 수준이 향상된 것은, “헬조선”이라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큼
-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이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낮은 사회적 신뢰, 취약한 사회적 지지, 낮은 자율감, 높은 부패 인식, 과도한 상호 비교 및 경쟁체제,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행복관 등에 기인함(국회미래연구원, 2019)
-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회미래연구원 (2019) 한국인의 행복조사 기반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서울
- 김서영 (2016). 『3부 청년, 귀신섬을 흔들다 꿈 앓아간 ‘귀신 섬’ 탈출 꿈꾸다 일어난 대만 젊은이들』, 경향신문, 2016.03.07.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3072324265#c2b>
- 김익환 (2022) 『靑 자화자찬한 한국 성장률…대만에 4년 연속 밀렸다』, 한경, 2022. 1. 2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51890i>
- 유기자 (2020). 『대만, 차이잉원총통 2기 정부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05.2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82301](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82301)
- 유기자 (2021). 『2021년 상반기 대만 경제 8%성장, 연간 5% 전망대세』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1.08.20. [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1/08/20210818125525190310\\_7?md=20210821000005\\_S](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1/08/20210818125525190310_7?md=20210821000005_S)
- 이데일리 (2022), 『19년만의 한국 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 이데일리. 2022.04.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32299728&mediaCodeNo=257>
- 한준 (2021).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개발원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i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Freedom House (2017) Freedom in the World 2018,

### 삶의질데이터센터 소개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삶의 질 추구, 불평등 심화, 신종 감염병 등장 등 미래사회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및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는 삶의질 및 행복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입법부 중심의 독립적 증거 기반 중장기 정책·입법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학계와 국회 사이의 간격을 좁혀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인의 행복조사 소개

사회적 지표로서의 행복은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선진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 160여 개국 중 50위) 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여 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조사된 원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